



|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--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<br>인천광역시 |       | <b>보 도 자 료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인천의꿈*<br>대한민국의미래 |  |
|  |       | 배포일자   | 2022년 10월 31일(월)<br>총 4매 |   |  |
| 담당<br>부서   | 건강증진과 | 담당자  | • 정신건강담당<br>• 담당자        | 함춘영 ☎440-1581<br>이애숙 ☎440-1583  |  |
| 사진(이미지)  |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참고자료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
| 보 도 시 점  |    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
**코로나19 걸린 인천시민 64.6% ... 정신적 후유증 경험**  
**- 571명 대상 '정신건강 추적조사' 실시 ... '주의집중력 저하' 후유증 가장 많아 -**  
**- 오는 12월 최종 결과 분석해 정신건강증진 정책에 활용 -**

코로나19에 확진받은 인천시민 571명 중 17.2%는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으며, 64.6%는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경험자 571명을 대상으로 「인천시 코로나19 경험자 정신건강 추적조사」를 실시하고, 그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, 2021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2019년 보다 11.9% 증가한 405만8천855명으로 집계됐다.

앞서 지난해 시는 「인천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바 있으며, 올해는 코로나19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 근거 마련을 위해 「인천시 코로나19 경험자 정신건강 추적조사」를 진행하고 있다.

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및 완치된 인천시민 571명을 대상으로 3개 영역, 15문항, 세부61문항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 조사 도구를 이용해, ▲삶의 변화 경험과 인식 ▲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현황 ▲코로나19 심리지원 경험 및 서비스 요구 등 코로나19 경험 전·후의 변화와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.

이번 추적조사 중간 조사결과, 571명 중 66.7%에 해당하는 380여 명이 일상 회복이 됐다고 응답했으나, 17.2%에 해당하는 98명은 심한 심리적 고통 경험했다고 응답했다. 또한 64.6%가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, 그 중 주의·집중력 저하가 26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이러한 검사 결과는 10월 현재 조사참여자 전원에게 발송됐으며, 데이터 정리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오는 12월 중에는 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및 유관기관 배포,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.

김석철 시 건강보전국장은 “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,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.”면서, “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, 인식개선 캠페인 및 취약계층 찾아가는 이동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, 마음이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## 붙임 1

## 인천광역시 코로나19 경험자 정신건강 추적조사 중간 조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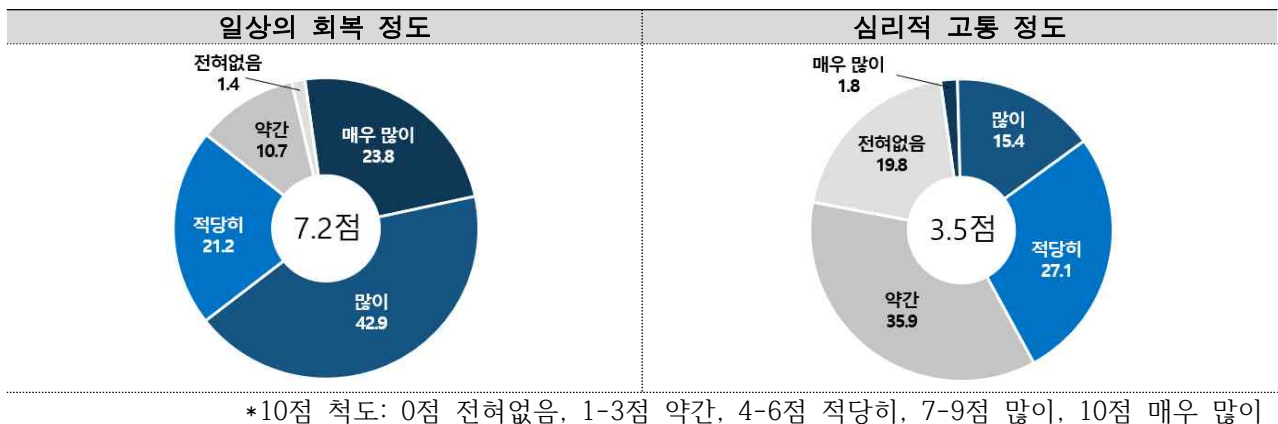
### ○ 일반적 사항

- 전체 : 571명
- 성별 : 여성 68.7% > 남성 31.3%
- 연령 : 30대 28.5% > 40대 25.6% > 20대 22.1% 순
- 거주지 : 계양구 23.5% > 강화,옹진군 22.2% > 남동구 15.1% 순
- 코로나19 경험시기 : 2022년 84.1% > 2021년 12.6% > 2020년 3.3% 순

### ○ 일상 회복은 66.7%, 심한 심리적 고통 17.2% 경험

- 코로나19 경험자의 66.7%에서 일상 회복이 되었으나, 17.2%에서는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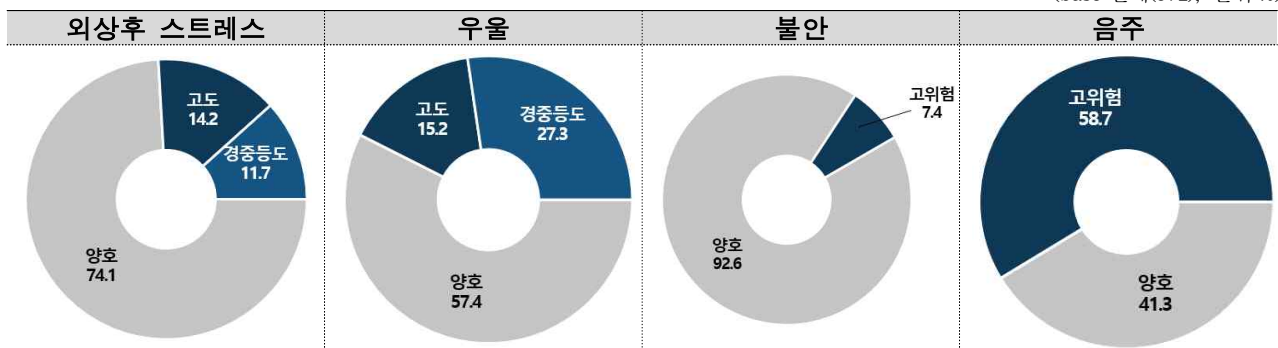
(base:전체(571), 단위:%, 10점 척도 평균)



### ○ '21년 대비 외상 후 스트레스, 우울, 불안 감소하나 음주 위험 증가

-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 14.2% ⇨ 생활치료센터조사<sup>1)</sup> 고위험 24.1%와 비교하여 ▼41.1%
- 우울 고위험 15.2% ⇨ 생활치료센터조사 고위험 18.0%와 비교하여 ▼15.6%
- 불안 고위험 7.4% ⇨ 인천조사<sup>2)</sup> 고위험 28.6%와 비교하여 ▼74.1%
- 음주 고위험 58.7% ⇨ 인천조사 고위험 25.4%와 비교하여 ▲131.1%

(base:전체(571), 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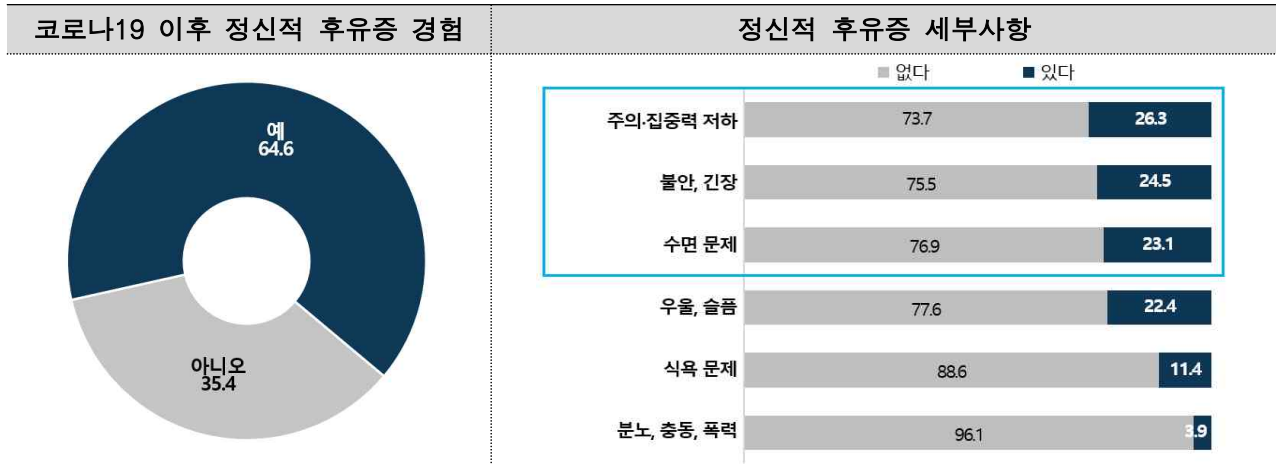
1) 인천광역시(2021), 「인천광역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마음건강 선별검사(내부자료)」 (전체=1,282명)

2)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(2021), 「인천광역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」 중 경험자 결과(전체=63명)

○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64.6% 경험하며, 주의집중력 저하가 주요

- 코로나19 이후 정신적 후유증은 64.6%에서 경험함.
-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의 세부사항으로는 1순위 주의집중력 저하(26.3%), 2순위 불안·긴장(24.5%), 3순위 수면문제(23.1%), 4순위 우울·슬픔(22.4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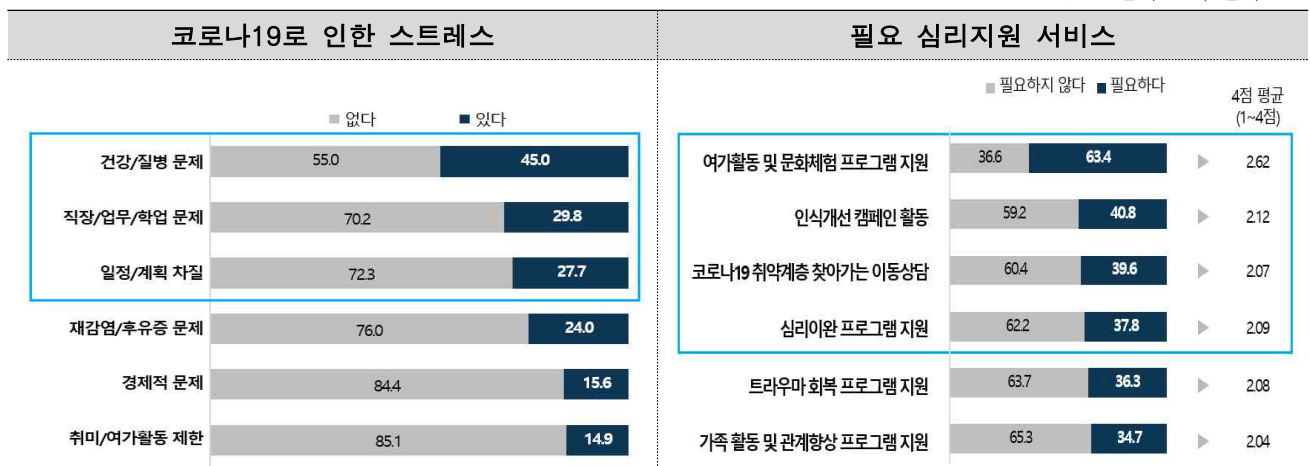
(base:전체(571), 단위:%)



○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높고, 여가/문화 활동을 통한 심리회복 지원 요구

- 코로나19로 인한 주요한 스트레스 사항은 1순위 건강 및 질병 문제(45.0%), 2순위 직장/업무/학업 문제(29.8%), 3순위 일정/계획의 차질(27.7%) 순으로 나타남.
- 필요한 심리지원 서비스 1순위는 여가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(63.4%), 2순위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(40.8%), 3순위 코로나19 취약계층 찾아가는 이동상담(39.6%) 등 순으로 나타남.

(base:전체(571), 단위:%)



※ 상기 내용은 일부 결과이며,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서 초안 작성 중임.